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윤 기 형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국방 관련 기관 이전과 국방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내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 기피 현상으로 오늘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는 농가 노동력의 수요 변동을 따라가지 못해 농업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브로커 성행, 불법 파견, 근무지 이탈,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농촌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기존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모임 회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셔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얻어진 의견을 모아 본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 좋은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들,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충청남도의회 의원 윤기형

목 차

제1장 연구모임 등록	1
1.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3
2. 연구활동 계획서	4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5
제2장 연구모임 활동	11
1.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12
2. 제2차 회의	25
3. 제3차 회의	56
제3장 연구활동 결과	73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74
2. 연구활동비 정산서	75

I. 연구모임 등록

1.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연구활동 계획서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대표자 : 윤기형 의원
3. 연구 목적 : 고령사회에서 인구감소로 초고령사회(2026)로 향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인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업현장의 현실임. 이에 효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구성원(10명)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윤기형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도의원
간사	이명호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단	이명호	차장
회원	송정란	건양대학교 휴머니티컬리지	송정란	교수
	이종화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도의원
	김석곤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곤	도의원
	장인동	충청남도 농산정책팀	장인동	팀장
	손성희	토마토재배 농장	손성희	대표
	이성우	딸기재배 농장	이성우	대표
	이진양	상추재배 농장	이진양	대표
	유영자	상추,수박재배 농장	유영자	대표
	양보승	연무농업협동조합	양보승	상무
	강마야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

※ 붙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7월 8일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윤기형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의원 연구모임 변경등록 신청서

1. 모임명 :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대표자 : 윤기형 의원
3. 연구목적 :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외국인근로자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구성원 : 12명(의원 3, 공무원 1, 관련분야 전문가 8)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1	대표	윤기형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2	간사	이명호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촌지원단 차장	이명호	
3	회원	김석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곤	
4	〃	이종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5	〃	장인동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장	장인동	
6	〃	송정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송정란	
7	〃	양보승	연무농업협동조합 상무	양보승	
8	〃	강마야	충남연구원 박사	강마야	
9	〃	유영자	수박재배 농장 대표	유영자	
10	〃	이철훈	새송이버섯재배 농장 대표	이철훈	
11	〃	이대현	상추재배 농장 대표	이대현	
12	〃	류동진	연무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회장	류동진	

※ 변동사항

1. 연구모임명 변경 / (당초) 외국인노동자 → (변경) 외국인근로자
2. 연구모임 회원 변경

연번	성명	직책	비고
1	이진양(상추재배 농장 대표)	회원	삭제
2	이성우(딸기재배 농장 대표)	회원	삭제
3	류동진(연무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회장)	회원	신규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 구성된 본 연구모임의 모임명 및 구성원이 변동되어 등록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윤기형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②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자		윤기형 의원
연구내용	과제	농가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목적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
연구활동기간		2022. 7. ~ 2022. 12. 20.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구활동비	소요액	4,000천원
	산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 붙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7월 8일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윤기형 (인)

충청남도의회의회장 귀하

③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1. 모임명 :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2. 대표자 : 윤기형 의원
3. 연구목적 :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
4. 연구과제
 - 농가 외국인 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5. 연구방법
 - 가) 추진 주체
 -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10명 연구위원 위촉
 - 나) 추진 내용
 - 과제별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논의(워크숍)
 -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토론회)
 - 다) 세부 추진 계획
 - ① 한국의 농업부문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
 - 일시 : 2022. 8월
 - 장소 : (안)논산문화원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8명 내외
 - 내용 : 한국의 농업부문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 보완 방안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5:00	주제발표 1
15:00~15:40	주제발표 2
15:40~16:00	질의 응답과 종합 토론
16:00~	폐회

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보완과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

- 일시 : 2022. 9월 ~ 10월
- 장소 : (안)논산문화원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10명 내외
- 내용 :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보완과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연구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4:50	주제발표 1
14:50~15:20	주제발표 2
15:20~16:0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6:00	폐회

③ 보완된 농가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논의

- 일시 : 2022. 11월
- 장소 : (안)논산문화원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10명 내외
- 내용 : 보완된 농가 외국인근로자 제도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논의
-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13:30~14:00	접수
14:00~14:20	개회, 참석자 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14:20~14:50	주제발표 1
14:50~15:20	주제발표 2
15:20~16:00	질의 응답 및 종합 토론
16:00	폐회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 운영

6. 추진 일정

- 8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9~11월 중 분야별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7. 기대효과

- 농업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기 초
계	4,000	
연구모임 활동비	2,200	○ 연구모임 발족 및 정기모임 - 1,100,000원×2회 = 2,200,000원
현황조사 및 분석	300	○ 자료조사 및 분석 - 300,000원×1식 = 300,000원
워크숍 및 토론회	1,000	○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 1,000,000원×1회 = 1,000,000원
보고서 인쇄	500	○ 종합보고서 발간 - 500,000원×1회 = 500,000원

Ⅱ. 연구모임 활동현황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회의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회의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3. 제3차 연구모임 토론회

① 제1차 연구모임 회의개요

-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
윤기형 의원 연구모임 제1차 회의 계획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외국인노동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제1차 회의 계획임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8. 18.(목) 15:00~16:30
- 장 소 :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교육실 M1(홍성군 홍북읍 흥예공원로 20)
- 대 표 자 : 충청남도의회 윤기형 의원
- 참 석 자 : 13명(연구모임 회원)
- 내 용 : 「농가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방향 설정 및 자유토론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5:00	15: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이명호 간사)
15:05	15:10	5´	• 인사말씀	윤기형 의원
15:10	15:15	5´	• 기념촬영	사회자 (이명호 간사)
15:15	16:15	60´	• 토론 및 질의응답 (모임 운영방안 논의/ 제2차 회의 조율)	회원 전원 (윤기형 의원)
15:15	15:25	10´	• 마무리 및 폐회	윤기형 의원

연구모임 제1차 모임 회의록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외국인근로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모임 제1차 회의 결과임

□ 개최 개요

- 2022. 8. 18.(목) 15:00 ~ 16:30 /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205호)
- 참석인원 : 총16명(회원9, 참관3, 대리참석1, 의회사무처 직원3)

□ 주요 내용

- 15:00 ~ 15:10 사진촬영 및 발족식, 회원 상견례
- 15:10 ~ 16:30 자유토론으로 진행
- (이대현 상추재배농가 농업인) 현재 외국인근로자 4명 고용 중. 외국인근로자는 정식 허가 건물에만 입주시켜야 하는데 건물 렌트 비용이 부담된다. 건물이 없어 빈 집 또는 임시 농막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결국 외국인근로자 임금이 깎이게 됨.
 외국인근로자들은 일거리를 골라서 한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함.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한다.
- (유영자 수박재배농가 농업인) 현재 외국인근로자 1명 고용 중이고 때때로 파견도 받는다. 한국사람 일당은 올해 7만원에서 내년 8만원으로 오르고, 외국사람 시간당 수당은 올해 9,160원에서 내년 더 오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시간정해서 오는데 일은 안 하고 시계만 보고 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버린다. 한국사람 쓰면 외국인근로자 따라가려고만 한다.
- (이철훈 새송이버섯재배농가 농업인) 외국인근로자가 1만 명이 필요한데 5천명만 데려온 정부가 애초에 잘못. 외국인근로자들은 싫은 소리 한마디, 월급 이야기만 하면 도망가 버림. 모든 법이 외국인들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문의하면 인권단체, 약자 핑계를 댐. 똑똑한 외국인근로자는 농장주를 금방 노동부 또는 NGO에 신고하고 농민은 나쁜 놈 취급당하기 일쑤. 8월 14일 미안마인 2명을 고용했는데, 산업안전공단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농막에다 재우는지, 가설 건축물에서 재우는지 확인하려고 점검 나옴. 외국인근로자들을 상전처럼 모셔야 하고, 그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법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노동문제 관련 일자리분야 공무원이 참석

했으면 한다.

- (류동진 연무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회장) 한국 사람이 혼자 20분이면 할 일을 외국인근로자는 일을 안 하려고 해서 한 시간이 되어도 끝내지 못한다. 이들은 매일 술 마시고 노래 부르다 늦게 자서 다음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 적당히 하다가 도망가도 중간브로커가 개입하여 이들을 합법근로자로 만들어버린다. 상추 값 떨어질 때 수확하게 되면 수수료, 박스 값, 외국인근로자 인건비 등 해서 오히려 빚 얻어서 월급을 쥐야한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값이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봉이다. 나라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농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꼼꼼하게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맞춰주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
- (송정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외국인근로자들이 약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들이 약자로 보인다. 정부에서 행정 실태조사 등이 필요해 보인다.
-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작년에 농업분야 근로자 노동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결론은 외국인근로자를 더 이상 쓰지 말고, 공공 단위·공적체계에서 내국인근로자를 동원하는 노동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숙소문제, 최저임금, 인건비 등 여러 문제인식이 있지만 결국 농작물 가격 문제로 귀결된다. 연구 분야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표현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원이 있는데 다음에 발제를 들어도 좋을 것 같다. 법률은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끝났을 때 시범 사업 아이디어 몇 가지 발굴하기를 바란다.
- (이대현 상주채배농가 농업인)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근로자가 정식근로자보다 더 많이 버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농번기 피크타임에는 노동력 수요가 급상승한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동해서 정식근로자 고용주가 불안해한다. 법을 지켜도 혜택이 없고 법을 어겨도 제재가 없다. 불법근로자를 추방하고 벌금을 과감히 부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국가차원에서 캄보디아 같은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비자입

국 절차 등을 간소화해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캄보디아 타운을 설립해서 활성화하거나 셔틀버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한다.

- (이철훈 새송이버섯재배농가 농업인)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다. 불법 인력사무소가 외국인근로자를 소개하면서 하루 60만원씩 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주는 시급 9,160원도 과도하다. 농산물은 가격 변동 폭이 큼으로 인건비를 정해버리면 농민들은 방법이 없다.
- (양보승 연무농협 상무) 농협에서 일하면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우선 고용허가제는 절차가 복잡해서 농가 입장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고용-피고용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용계약서 변동·수정 등의 사항도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건 숙소문제다. 외국인근로자 전용 숙소를 논산시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들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지역 농협과 행정을 연계했으면 한다.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시작된다.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 (권태양 주식회사 티아이 대표이사) 현재 다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계절근로자 제도는 허점이 많다. 충남 자체적인 모범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 (조성만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 주무관) 일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외국인근로자는 첫째, 고용허가제(고용노동부)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둘째, 계절근로자 제도(법무부, 농식품부)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다. 고용허가제는 체류기간이 3년이고 정식허가를 받으면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계절근로자 제도는 90일과 150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이탈근로자가 많지 않지만,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탈율이 높다. 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다. 일단 민간에이전시의 과도한 수수료가 큰 문제다. 아울러 사회보험상 근로자들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 정서와 외국인들 정서(일할만큼 받아야 한다)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 물가차이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계절근로자로 한번 일하고 돌아가면 본국에서 버는 것의 3년 치를 벌어난다.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에서는 학력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도 온다. 농촌 일을 해봤던 사람 뿐 아니라 영똥한 사람도 섞여 보내는 조작도 일어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MOU

체결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법무부를 2번이나 방문했으나 실무진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민간에이전시가 난립하면 농촌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오운석 논산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장) 논산시는 상반기에 결혼이민자 가구 근로자 40여명을 들여왔다. 많은 인구 동원은 어렵지만 숙소·숙식·인권문제는 해결이 된다. 아울러 농촌 외국인근로자 전용 기숙사와 MOU 체결도 현재 준비 중이다. 다른 시군도 많이 다녀왔으나 민간브로커가 엮이지 않고서는 MOU 체결은 현재 어렵다. 국외브로커, 국내브로커 모두 연관 되어있다. 하지만 법무부 지침은 MOU에 민간이 개입하면 1년간 지자체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취소하게 되어있다. 현실은 외국인근로자가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 문제가 심화 될 것은 뻔한 일이다.
- (이종화 의원) 농가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대해 필요성은 느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숙소·인건비·불법체류자·고용계약 문제 등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잘 알게 되었고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 (윤기형 의원, 연구모임 대표) 연구모임 결성의 가장 큰 동기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상추 같은 농작물 출하를 안 해도 되는 걸 하게 되어 농가 소득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오늘 토론을 들어보니 이 부분 가장 맹점은 민간에이전시의 수수료 같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몰아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은 추방하지 않았다. 미국 서부 갔을 때 광활한 딸기 농장 수확하는 인력이 30~50명 이었다. 이들이 다 불법 외국인근로자였다. 다음 2차 회의에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좋겠고, 도 식량원예과의 발표도 들었으면 한다. 아울러 연구모임 회원들 대부분이 논산 분이기 때문에 2차 회의는 논산시 연무농협 회의실에서 했으면 한다.

□ 종합 평가

- 농가 외국인근로자 운용실태와 관련하여 농업인,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 행정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청취함. 회의내용 반영하여 제2차 회의 때 적합한 발제 주제 선정 및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참고 회의사진



연합뉴스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안' 연구모임 발족

입력 2022.08.18. 오후 5:39



충남도의회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농가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이 18일 발족했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도의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농업 부문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제도, 작물의 생장주기와 노동력 수요 변동 문제, 농가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보완 방법과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정에 제시할 계획이다.

윤기형 의원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내국인의 농업 근로 기피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도 등에도 농업 현장은 인력이 부족해 불법 파견, 인건비 상승, 외국인 근로자와의 마찰 등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농가 인력난 해소 방안과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min365@yna.co.kr

조성민(min365@yna.co.kr)

2. 제2차 회의

① 제2차 연구모임 회의개요

-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

윤기형 의원 연구모임 제2차 회의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9. 1.(목) 14:00 ~ 16:00
- 장 소 : 건양대학교 논산창의융합캠퍼스 명곡정보관 604호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1)
- 대 표 자 :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
- 참 석 자 : 16명(연구모임 회원, 발제 및 참관, 의회사무처 직원 등)
- 내 용
 - 발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연구위원/ 권태양 (주)티와이 대표이사)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10	10'	• 기념촬영 및 인사말씀	윤기형 의원
14:10	14:50	40'	• 주제발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엄진영 박사
14:50	15:10	20'	• 주제발표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권태양 대표
15:10	15:50	4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회원 전원
15:50	16:00	10'	• 마무리 및 폐회	윤기형 의원

참고 1 연구모임 회원 현황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대 표	윤 기 형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2	간 사	이 명 호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촌지원단 차장	
3	회 원	김 석 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4	회 원	이 중 화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불참
5	회 원	장 인 동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장	
6	회 원	송 정 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7	회 원	양 보 승	연 무 농 협 상 무	
8	회 원	강 마 야	충 남 연 구 원 연 구 위 원	
9	회 원	유 영 자	수 박 재 배 농 장 대 표	
10	회 원	이 철 훈	새 송 이 버 섯 재 배 농 장 대 표	
11	회 원	이 대 현	상 추 재 배 농 장 대 표	
12	회 원	류 동 진	연무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회장	

<발제 및 참관>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발 제	엄 진 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	발 제	권 태 양	(주) 티 와 이 대 표 이 사	
3	참 관	김 민 수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의원	
4	참 관	김 용 남	논 산 시 농 업 정 책 과 장	

참고 2 발제자 프로필

①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명	엄진영	사진
소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직위	연구위원	
전공	경제학	

○ 학력사항

기간	학교	전공	학위
2008. 9. - 2014. 5.	미국뉴욕주립대학교- Stony Brook	경제학	박사
2006. 8. - 2008. 8.	미국뉴욕주립대학교- Stony Brook	경제학	석사
1999. 3. - 2003. 2.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	학사

○ 주요경력

기간	기관	분야	직책
2019. 10. -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연구위원
2020. 3. - 현재	농촌경제	농업·농촌	편집위원
2018. 6. - 2022. 6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	사외이사
2014. 7. - 2019.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부연구위원
2011. 1. - 2012. 1.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몽골)	국제경영학과	전임강사
2009. 9. - 2014. 5.	미국뉴욕주립대학교- Stony Brook	경제학과	강사

② 권태양 (주)티와이 대표이사

PROFILE



권태양

權泰陽 | KWON TAEYANG

현재

- 주식회사 티와이 대표이사
- 엘케이 바이오 공동대표

경력

- 에스원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2019. 1. ~ 2022. 3 / 경남 거제시, 선박임가공업, 건설업)
- 주식회사 태양아이앤디 대표이사 (2019. 11. ~ 2021. 9 / 울산광역시, GS엔텍 사내 협력회사)
- THE K THAILAND CO., LTD 대표이사 (2013. 12. ~ 2018. 5 / 태국 방콕시, 근로자파견사업)
- 푸드민 대표 (2010. 2. ~ 2012. 10 / 서울시 은평구 / 건강식품 제조업)

② 엄진영 박사 발제자료

충청남도인원 윤기형 인원 연구모임 제2차 회의 발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2022. 9.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출처: 엄진영 외 2020, 「농업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성근인원실 농업인력특별발전 토론회 발표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목 차 Contents




1. 농업 임금근로자 부족 완화 정책
2.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3.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업 임금근로자 부족 완화 정책

3

농업임금근로자 부족 완화 정책

- **농업 부문 내국인 노동력 유입 정책**
 - 농업 공급과 수요 매칭: 농촌고용인력증개센터, 도·농인력증개서비스, 지자체 운영 인력 지원센터
 - 전문인력(청년) 인건비 지원: 농업법인 청년 취업자 지원 정책
- **농업 부문 외국인 노동력 유입 정책**
 - 고용허가제도(E-9): 연중고용, 3년+1년 10개월 (최대 9년 8개월)
 - 계절근로자제도(C-4, E-8): 3개월, 5개월 고용
 - 지자체 MOU 체결방식, 다문화가족 본국 가족 초청 방식

-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 불법취업) 만연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제한. 농업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 심화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
- 임금근로자 부족 규모? 농업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 방안?

4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5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수**
 - 코로나19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은 높음.
 - 1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최소 21.9~최대 43.5%의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1~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최소 24.3~최대 48.0%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3~6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최소 30.2~최대 59.8%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 6개월 이상 임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최소 41.6~71.8%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수(2020년)〉
단위: 호수(%)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전체 고용농가	136,014	27,352	10,003	16,833
외국인 남성 고용 농가	29,322(21.6)	6,492(23.7)	3,016(30.2)	6,997(41.6)
외국인 여성 고용 농가	29,824(21.9)	6,639(24.3)	2,967(29.7)	5,095(30.3)
외국인 고용 농가	최소	29,824(21.9)	6,639(24.3)	3,016(30.2)
	최대	59,146(43.5)	13,131(48.0)	5,983(59.8)

자료: 통계청, 농업농조사 (2020년)
주: 외국인 고용 농가 최소는 외국인 남성 고용 농가와 외국인 여성 고용 농가 중 최솟값이고 기성, 최대는 외국인 남성 고용 농가인 외국인 여성 고용 농가 더 큰 값을 가정함.

6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 **외국인 근로자 인력 규모**
 - 농가가 고용한 근로자 전체 규모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최소 41.7%에서 최대 57.5%로 나타남.
 - 6개월 이상 고용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복수의 농가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은 것을 고려,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농가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때, 6개월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는 102,982명 수준.
 - 1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1년에 10농가에서 일한다고 가정할 경우, 1개월 미만 외국인 근로자 수는 89,618명(남자 31,746명, 여자 57,872명)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 인력규모(2020년)〉
단위: 명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내국인 근로자	343,932	808,561	72,891	185,217	28,829	63,991	35,320	62,292
외국인 근로자	317,461	578,726	83,920	138,241	38,333	59,837	47,705	55,277
외국인 근로자 비율	48.0	41.7	53.5	42.7	57.1	48.3	57.5	47.0

자료: 통계청, 농업농조사 (2020년) 원자료 분석

7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
 - 고용허가제(E-9) 2020년 농업부문 신규 유입 예정 규모는 1,388명
 - 고용허가제(E-9) 2019년 기준 농업부문 누적 인원 수는 31,378명 (남성 21,088명, 여성 10,290명)
 - 계절근로자제(C-4) 2020년 기준 4,917명 예정 받았으나, 코로나 19로 입국 제한

단위: 명

외국인 인력규모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개월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317,461	578,726	83,920	138,241	38,333	59,837	47,705	55,277

↓ 현재 제도로 고용 불가능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 제도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 불법취업) 규모와 원인, 해결방안은?
인력부족 규모와 원인, 해결방안은?

8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 참고: 고용기간에 따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 (엄진영 외, 2020)

- 작물재배 농가의 일일고용 외국인 근로자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불법취업) 근로자
- 작물재배 농가의 월 단위 고용 외국인 근로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은 90%이상 상회
- 축산 농가(연중 고용)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은 46.7%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 작물재배업(2019년)〉

단위: 명, 호수

구분	제도	미등록+제도	미등록	전체 농가 수
일일고용	외국인만 고용	0	4(8.7%)	42(91.3%)
	내국인+외국인 고용	0	3(3.0%)	98(97.0%)
월고용	외국인만 고용	5(9.3%)	6(11.1%)	43(79.6%)
	내국인+외국인 고용	1(1.8%)	4(7.3%)	50(90.9%)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농가 비율: 축산업(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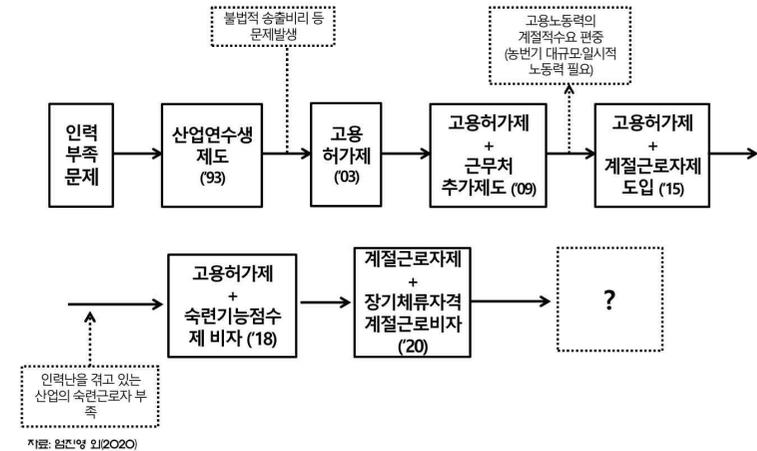
단위: 명, 호수

제도	미등록+제도	미등록	전체 농가 수
14(48.2)	7(24.1)	8(27.5)	29(100)
64(53.3)	3(2.5)	53(44.2)	120(100)

자료: 엄진영 외(2020) 설문조사 결과

제도의 한계

●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장기적 시각의 부재



제도의 한계

●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품목별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성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구분	현 제도 이용 가능 여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작물재배업	일용 근로자	X	· 인력의 절대적 부족,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낮음. · 현 제도로 1개월 미만 고용 불가능
	임시 근로자	△	· 인력 부족 · 1~68일 미만 고용 근로자 고용 불가능과 임시근로자 고용 기간은 1개월이 가장 많으나 현 제도로 불가능 ·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간이 긴 품목일수록,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상용 근로자	O	· 인력 부족 · 고용허가제 고용 가능하지만, 농한기철 고용 문제(미등록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농한기에 임금을 낮게 지급) ·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상대적 낮은 임금이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 대규모 농가의 경우, 상용근로자 신청 인원을 모두 배정받지 못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 고용허가제 신청 절차의 복잡함, 기준에 부합한 숙소시설 마련 등의 부담으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자료: 엄진영 외(2020)

제도의 한계

● 현장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

(품목별 제도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성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구분	현 제도 이용 가능 여부		제도 운영상의 문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
	양도	0		
축산업	양돈	0	· 인력 부족 · 임금 절감 효과 유인 적음. · 마등록 고용 이유는 신청 절차상의 문제, 신청 인원 배정 문제가 큼.	· 인력 부족 · 임금 절감 효과 유인 발생
	한육우/젓소	0		
	신란계/육계	0		

자료: 임진영 외(2020)

제도의 한계

●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부재



- ◆ 센터간 기능 중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부처 간의 고용 관련 정보 교류 논의 부족
- ◆ 농업 인력 시기별·품목별 수요 규모, 필요 인력, 노동력 확보 및 연계 방안의 계획하에 제도, 정책 수립 필요
- ◆ 인력 정책 수립 및 컨트롤타워 필요

제도 개선 방안

●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세분화 설계와 운영

기본방향: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에 따라 제도의 이원화

	제도	비자 종류	고용 주체	근무처 변경 제한	제도 추진
축산업, 연중고용 시설원예* (연중고용시설원예는 조건에 부합한 농가만 허용)	(가칭)농업인재제도 * 신설	(F-2-O) 거주	-	-	장기
	'농업' 숙련농업근로자제도 * 신설	E-7-5	농가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고용허가제 * 현행 유지	E-9	농가	제한적 근무처 변경	고용허가제 대상 품목 조정 필요: 단기

자료: 임진영 외(2020)

제도 개선 방안

●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세분화 설계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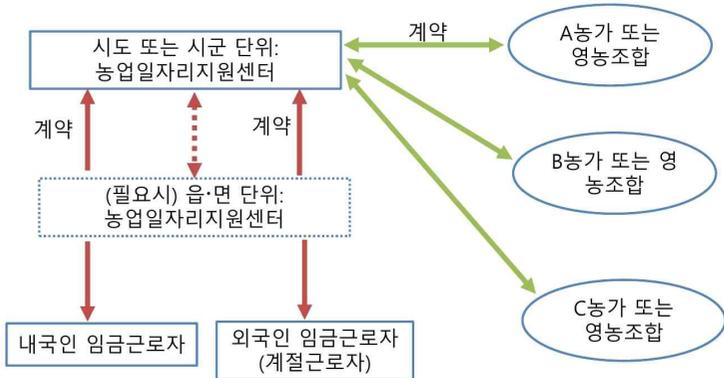
기본방향: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에 따라 제도의 이원화

작물재배업: ①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 E-8로 통합, E-8 취업 기간 최대 9개월 허용 ② 고용 주체에 따라 E-8-1(농업일자리지원센터 고용), E-8-2(농가 직접 고용)으로 분류					
일용고용	(가칭)농작업제도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농업 외국인 수용사업 형태 * 신설	E-8-1	농업 일자리 지원센터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임시 근로	1~2개월 고용	E-8-1	농업 일자리 지원센터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연속 3~5개월	E-8-2	농가	제한적 근무처 변경	단기
상용근로	연속 6~9개월 *농한기 고려	E-8-2	농가	제한적 근무처 변경	비자 체류 기간 확대 및 허용대상 품목 조정: 단기
	'농업' 숙련근로자제도 * 신설	E-7-5	농가	근무처 제한 없음	단기, 중기
	(가칭)농업인재 제도 * 신설	(F-2-O) 거주	-	-	장기

자료: 임진영 외(2020)

제도 개선 방안

- 시군 단위의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 간 인력 교류 필요



자료: 임진영 외(2020)

17

제도 개선 방안

-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 또는 농업인력 지원 법률 제정

-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 계획 수립
- 고용인력 활용 방안 마련(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 인력 알선중개 계획수립)

★ 시도단위 농업인력 종합계획 수립

- 해당 시군의 농업 인력 규모 파악과 시군 간 인력 연계 방안 수립

★ 시군단위 농업인력 종합계획 수립

- 농업 내국인력, 외국인력 실태 조사(규모, 부족 인원 등)
- 농업일자리 알선중개 기능 센터 간 인력 연계 및 현황 파악

자료: 임진영 외(2020)

18

제도 개선 방안

-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개선 필요

- MOU 체결 방식 개선 필요: 각 지자체 조건 상이, 브로커(송출업체) 급증 문제
 - * 법무부 기본계획안: 중개업자(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계절근로자 도입 원칙적 불허
- 공식적 기구(조직) 통한 MOU체결 및 계절근로자제도 이용 지자체간 협력 방안 필요
- 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해결 방안 필요
- 이탈문제 고민 필요: 선발과정에서의 검증, 전문적 통역자 역할 중요, 농가-근로자 간 갈등 해결
 - 창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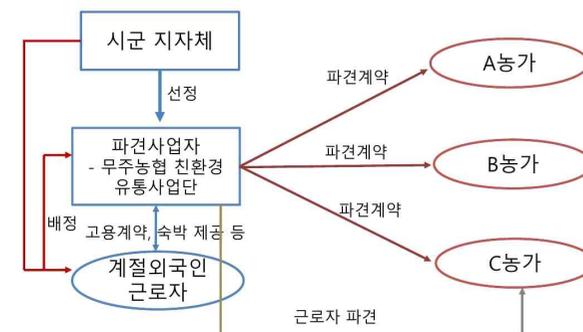
19

최근 관련 논의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사업

- 2022년 무주, 임실, 부여(상반기), 진안, 아산(하반기) 에서 실시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시범사업 도식화(무주군, 2021년)



20

최근 관련 논의

- 위성곤 의원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법안 논의
- 박대줄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

21



③ 권태양 대표 발제자료



한눈에 보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01

특정활동 비자 E-7 (1,4,5)

1. 특정활동 비자의 종류

- ㉠ E-7-1 농림어업 관련 관리자 / 전문 학사 이상, 경력 1년 이상
- ㉡ E-7-4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점수제) / E-9, H-2 경력 5년 이상 10년 이내
- ㉢ E-7-5 농어업 숙련인력 / E-8 경력 5년 이상

2. 장점

- ㉠ 전문학사 이상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및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근무지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 ㉢ 가족사 재정이 필요 없습니다.
- ㉣ 가족 단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의 효과가 있습니다.
- ㉤ 가족의 동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1명당 1+1의 효과가 있습니다.
- ㉥ 지역 인구 유입 및 농어촌 산업 발전에 유리 합니다.

3. 단점

- ㉠ 경력(E-7-1/11년 이상) 및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E-7-4~5)을 충족해야 합니다.
- ㉡ 연간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 비자 유지 조건 중 GNI의 80%이상의 연간 소득이 필수입니다.

03

외국인 계절근로자 E-8, C-4

1. 외국인 계절 근로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 상용 비자로서, 150일(E-8), 90일(C-4)의 기간동안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점

- ㉠ E-8-5 비자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이 가능 합니다.
- ㉡ 농어촌 산업이 비번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 ㉢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재 입국 및 재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인력소개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3. 단점

- ㉠ 전문적인 외국인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 ㉡ 최대 90일 ~ 15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약간의 정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사용이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다지기나 질병시 사용자는 치료비의 50%를 지원해야 합니다.
- ㉣ 거점형 가족사운영 및 통근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02

단기상용 비자 C-4-5

1. 단기상용 비자

C-4-5(최대 90일) 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단기 상용 비자로서, 해외 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 가능한 비자입니다.

2. 장점

-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이외의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중장남도에 특화된 외국인 농어촌 근로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 ㉢ 불법 인력소개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 ㉣ 해외 공관장의 재량으로 발급 가능한 비자로서, 도입 과정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습니다.

3. 단점

- ㉠ 전문적인 외국인 관리 능력이 필요 합니다.
- ㉡ 최대 90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거점형 가족사운영 및 통근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

04

고용허가제 E-9

1. 외국인 고용 허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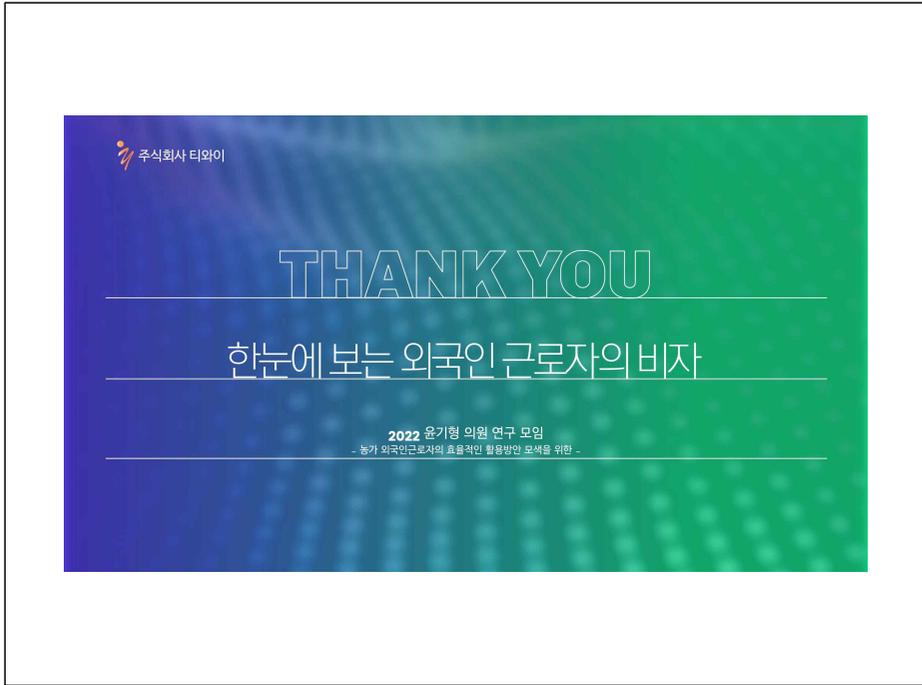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취업 비자로서 정기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장점

- ㉠ E-8-4 비자의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이 가능 합니다.
- ㉡ 상시 근로자가 필요한 농어업 관련 업체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3. 단점

- ㉠ 대한민국 입국 통로로 활용이 되어 이탈률이 높습니다.
- ㉡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능력이 필요 합니다.
- ㉢ 약간의 정책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 사용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사용이 어렵습니다.
 - 가족사 등.
- ㉣ 사용자의 근로자 급여 지급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참고 회의사진





충남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 "세분된 고용지원 필요"

입력 2022.09.01. 오후 4:39



충남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 2차 회의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1일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은 장기적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 부문 내·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취업이 여전히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으로 농업 임금 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세분화, 시군 단위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 간 인력교류,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논산1·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정책과 컨트롤타워 수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부처 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라며 "논의 사항을 토대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365@yna.co.kr

조성민(min365@yna.co.kr)

3. 제3차 회의

① 제3차 연구모임 회의개요

-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
윤기형 의원 연구모임 제3차 회의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2. 20.(화) 14:00 ~ 15:30
- 장 소 : 논산시청 3층 회의실(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 대 표 자 : 윤기형 의원(논산1, 국민의힘)
- 참 석 자 : 20여명(연구모임 회원, 발제 및 참관자, 사무처 직원 등)
- 내 용
 - 주제발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박미정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진행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10	10'	• 기념촬영 및 인사말씀	윤기형 의원
14:10	14:50	40'	• 주제발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박미정 교수
14:50	15:27	3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회원 전원
15:27	15:30	10'	• 마무리 및 폐회	윤기형 의원

참고 1 회의 참석자 현황

<연구모임 회원>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대 표	윤 기 형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2	간 사	이 명 호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농촌지원단 차장	불참
3	회 원	김 석 곤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4	회 원	이 종 화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불참
5	회 원	장 인 동	충청남도 식량원예과 농산정책팀장	
6	회 원	송 정 란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불참
7	회 원	양 보 승	연 무 농 협 상 무	
8	회 원	강 마 야	충 남 연 구 원 연 구 위 원	
9	회 원	유 영 자	수 박 재 배 농 장 대 표	
10	회 원	이 철 훈	새 송 이 버 섯 재 배 농 장 대 표	
11	회 원	이 대 현	상 추 재 배 농 장 대 표	
12	회 원	류 동 진	연무농협 딸기 공선출하회 회장	

<발제 및 참관>

연번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발 제	박 미 정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	
2	참 관	오 운 석	논산시 농촌활력과 농업정책팀장	
3	참 관	권 태 양	(주) 티 와 이 대 표 이 사	
4	참 관	강 중 선	前 논 산 시 의 회 의 장	

참고 2 발제자 프로필

프로필

성명	(한글) 박 미 정	(한자) 朴 美 貞	
	(영문) Park Mi Jung	성별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연락처	휴대폰	E-MAIL	pmj@kycu.ac.kr

학력

2011.03.~2015.12. 성결대학교 행정학 박사(이민정책 전공)
 2006.03.~2008.08. 경희대학교 교육학 석사(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2002.03.~2005.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사(국어국문학 전공)
 1998.03.~2000.08. 명지전문대학교 전문학사(경영학 전공)

경력

(현) 건양사이버대학교 부교수
 (전)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학과장
 (전)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원장
 (현) KIIP 대전1거점 이민자사회통합센터 책임교수
 (현) 2020 성인학습자 역량강화 교육콘텐츠개발 책임교수
 (현) (사)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정보위원장
 (현) (사)한국이민정책학회 대외협력위원장
 2010.03. - 2015.09. 이민자사회통합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임강사
 2012.09. - 2015.08. 법무부 귀화민간면접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2008.08. - 2009.06.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자격

- 한국어교원 1급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청소년지도사 2급
- 평생교육사 2급

주요논문

- 이민자를 위한 한국 사회 정착·통합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2호. 2021.08.31.
- 한국 교육 환경에서 영어강의를 담당하는 원어민 영어 교사들의 문화적 어려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제12권 3호. 2021.06.20.

- 외국인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전·충청 지역 거주 외국인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4집 1호. 2020.04.21.
- 경기도 다문화사업 담당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교육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2집 3호. 2018.12.24.
- 중도입국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응력 비교 연구: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1권 3호. 2017.12.18.
- 독서활동을 통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7 ICME(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culture and Education). 2017.06.17
- 사회적 지지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10권 제2호. 2016.08.11.
- 다문화청소년 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모색. 연합뉴스 다문화포럼. 2015.07.14.
- 외국인근로자의 갈등유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방글라데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01.20.
- 외국인근로자의 갈등유형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이민정책포럼. 2012.12.04.
- 한국의 난민 정책 현황과 정책 제안. 성결대학교 이민정책포럼. 2011.09.27.
- 개정 국적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복수국적을 중심으로. 법무부 공모논문. 2011.5.20.

저서

- 이민정책론(공저). 운성사. 2021.9.13.
- 다문화 독서지도 방법과 실제(공저). 정인출판사. 2017.04.17.
-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공저). 누리에듀북스. 2015.11.10.
- 사회통합정책론(공저). 배재대학교 학술정보처. 2013.8.23.
- 다문화 독서상당의 이해와 실제(공저). 태영출판사. 2013.6.30.

보고서

- 다문화 국가의 사회융합을 위한 정책수단 비교 연구(공동연구).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 2017-2022.
-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공동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1-12.
- 귀화 면접심사 제도 연구 및 심사 문항 개발(공동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1-12.
- 다문화언어(이중언어교실) 강사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효과적 운영 방안 모색(공동연구).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20-32.
-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재 현장 적용 및 활용 연구(공동연구). 국립국어원 2018-01-42.
- 국내 체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공동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8-11.
- 다문화가정 대상 교재 개발(공동연구). 국립국어원 2017-01-52.
- 사회통합프로그램 발전방안 연구(보조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1-12.

② 박미정 교수 발제자료

제4차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워크숍·대전 세종 충북 충남 권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강사 : 박미정
KOCU 건양사이버대학교
KONKUK CYBER UNIVERSITY

박미정

- 現)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
- 現) 대전1거점 이민자사회통합센터 책임교수
- 現)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대전협의회 위원
- 前) KIP 기술시험관
- 前) 법무부 귀화민간접관
- 前)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 前) 이민자사회통합센터 KIP 전담강사
- 前)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강사
- ✓ 한국어교원 1급
- ✓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 ✓ 청소년지도사 2급
- ✓ 평생교육사 2급



KOCU 건양사이버대학교
KONKUK CYBER UNIVERSITY



QUIZ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



하와이 한국인 이민 제1진을 태운 이민선 갤릭호

❖ 한국인 노동 이주의 역사

- 1903년 1월 13일, 조선인 102명 하와이 이주
- 1905년 멕시코 1,033명 이주(에네켄)
- 1963년 브라질 농업 이민 103명 이주
- 1963년~1977년 독일로 광부, 간호사 파견
- 1970년대 서남아시아 건설 노동자 파견

순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운영 현황
- 기대 효과
- 운영 실태
- 해외 사례
- 개선 방안
- 지역사회 통합 방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 2022년 전국 114개 지자체에 총 19,71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12,330명의 계절근로자 중, 현재까지 75개 지자체에 5,311(43.1%)명이 입국하여 근무 중(6. 26. 기준)
 - 해외입국 계절근로자 4,497명(84.7%), 국내체류 계절근로자 814명(15.3%)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 2023년부터 해조류 양식업 전국 확대, 종자생산 양식업·굴 가공업에도 적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현황

지 자 체	농 업		어 업		합 계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고용주	근로자
세 총 특	12	15			12	15
공 주 시	30	114			30	114
금 산 군	61	144			61	144
논 산 시	48	134			48	134
담 진 시	42	177	1	2	43	179
부 영 시	7	15	11	28	18	43
충청남도	39	101			39	101
서 산 시	9	36			9	36
서 천 군			7	23	7	23
예 산 군	18	66			18	66
청 양 군	24	63			24	63
태 안 군	27	110	18	111	45	221
단 양 군	16	36			16	36
보 은 군	48	90			48	90
영 동 군	10	14			10	14
충청북도	10	27			10	27
충 평 군	3	10			3	10
진 천 군	17	57			17	57
청 주 시	32	68			32	68

자료: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22.7.6)

전국 7,388명(84개 지자체)

- 1위: 전남 완도(어업) 659명(8.9%)
- 2위: 전남 고흥(어·농업) 424명(5.7%)
- 3위: 전남 진도(어·농업) 366명(5.0%)
- 4위: 경북 상주(농업) 308명(4.2%)
- 5위: 경북 포항(어업) 240명(3.2%)

충청·세종 1441명(19개 지자체)

- 1위: 충남 태안 221명(15.3%)
- 2위: 충남 당진 179명(12.4%)
- 3위: 충남 금산 144명(10.0%)
- 4위: 충남 논산 134명(9.3%)
- 5위: 충남 공주 114명(7.9%)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기대 효과

- 지역사회 계절성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8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



전남 보성군 득량면에서 일하는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입국, 10월24일) 10여일간의 한국 생활을 하며 느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 "한국현실 상상과 달라"
 "추워, 너무 추워, 추워서 견딜 수 없다"
 "한국어를 몰라 소통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 힘들다"
 "일당인지 월급인지 등 계약조건을 사전에 잘 알 수 없는 것도 아쉽다"
 "돈 벌러 왔는데 5개월은 비자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짧다"



▶ 농가 "이탈 많고 인건비도 높아"
 - 계절근로자 능력이 내국인의 절반밖에 안됨
 - 마늘양파·옥수수 감자를 심고 수확하는 방법이 다 달라 가르치다보면 계절근로자 근로 기간인 5개월이 후딱 가버림
 - 높은 일당을 받는 불법채류자들이 계절근로자의 '허파에 바람을 넣어'
 - 농작업에 적용하는 1~2주만이라도 수습 기간을 뒤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



-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받으려면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함.
- 국내 결혼이민자들은 친척을 본국에서 초청하고 싶어도 절차를 잘 모르는 실정이고, 본국에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음.
-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행정 전산화도 잘 안돼 있고, 한국 대사관에 지정한 기관에 가서 건강검진이나 범죄기록증명을 받아 번역·공증하는 등의 절차도 쉽지 않음.
- 우리 지자체가 이를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만큼 별도의 전담기관 설치가 절실함.

계절근로자와 농가 호소하는 애로사항과 대안

	문제	대안
계절근로자	한국 언어·문화·농촌 이해 힘들어	사전교육 도입
	고용 절차, 계약 내용 등 사전파악 어려워	지원기관 신설
농가	농작업 역량 부족	사전교육 도입, 수습기간 운영
	급등하는 인건비	수습기간 운영, 내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무단이탈 우려	불법채류자 문제에 당국 개입 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외 사례

1. 캐나다

- 계절농업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Agriculture Workers Program: SAWP) 운영
- 연방정부가 관리하고 민간기관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제 외국인력 도입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무부처는 인적자원개발부(HRSDC)와 그 산하기관인 대민 행정서비스청(Service Canada)

13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외 사례

1. 캐나다

-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외에 연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로(Agricultural Stream)도 운영
- ✓ 장기고용 형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 (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 ✓ 농식품분야 영주이민 시범사업 (Agri-Food Immigration Pilot)
- 일부 주에서는 농업분야 투자를 통해서 영주이민자를 받아들이기도 함
- 농업분야에서 일해 온 외국인의 숙련도에 따른 장기취업 요구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될 수 있음

1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외 사례

2. 호주

- 단기고용 형태: 계절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
- 호주 정부는 SWP 노동자들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책임이 공인업체(Approved Employer: AE)에 있음을 강조
- 공인업체(AE)가 SWP 노동자의 출국에 관한 안내 및 항공편 준비, 출국 후 교육, 기술 및 고용부(Department of Education, Skills and Employment: DESE)에의 보고 등을 책임짐
- SWP 노동자의 경우 호주에 재입국이 허용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은 이들을 재고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미 숙달된 농업노동자를 활용할 수 있음

15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외 사례

2. 호주

- 장기 전환형 고용 형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 18~30세 외국인들이 호주에서 장기 휴가를 즐기면서 부수적으로 취업을 통해 휴가 비용을 조달, 호주 지역사회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도록 기획된 프로그램
- WHMP이 농업분야 인력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참가자가 연도별로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음
- 두 제도(SWP, WHMP)를 농업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병행 운영

1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 계절근로자를 선정 배치 할 수 있는 전담기관 필요
- 신뢰할 만한 외국지자체 MOU체결 어려움
- 국내지자체 특성상 외국지자체와 교류가 없어 신뢰할 수 있는 외국지자체 선정 한계
- 관련 부처 유기적 협업 필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4대 보험 업무 등
- 외국인 임시번호로 산재보험 등록 시 가입 어려움
-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외국인등록신청 시 빠른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필요

17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용가능 현황 및 외국인 계절근로 입출국 4대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 운영비 확보 절실
- 입출국 및 외국인등록 버스 임차료, 현장관리인 인건비, 임시숙소 운영비 등 국도비 반영 필요

자료: 부여군 외국인 계절근로 시범 사업 애로사항 중

18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운영 실태	원인	대안
브로커 개입	지자체 주관 업무협약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법적 기반 마련)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공급)
무단이탈	근무환경불만족 무단이탈 기획입국	결혼이민자(F-1-5), 외국국적동포(F-1-9)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및 확대 국내 등록외국인 중 계절근로자 참여 요건 완화 및 확대 성실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농업숙련인력(E-7-5) 자격 부여
불법 파견	농촌지역 품앗이 문화	농어촌 상황을 고려한 업무계약 필요 농어촌 지역 다문화이해/다문화감수성/인권 교육 확대

19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필수이수과정)**
- 내용: 체류 농어촌 환경, 문화, 종사 업종, 기초 한국어, 안전교육, 성실근로자 제도 등
- 강사: 근로자 출신국 이주민 **통합인력관리플랫폼**
- 고용주 대상 사전 다문화이해/ 다문화감수성 교육 실시 **(필수이수과정)**
- 내용: 근로자 국가의 문화, 기초 언어, 안전·인권교육/ 계절근로자 제도 유의사항 등
- 강사: 근로자 출신국 이주민/ 다문화사회전문가 등

20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사회 통합방안

- 계절근로자 고용 업체 방문 실태 점검 및 상담
- 내용: 근무 환경 점검, 고용주-근로자 간 애로 사항 상담, 농업숙련인력(E-7-5) 자격 등
- 담당: 근로자 출신국 이주민/ 다문화사회전문가 등
- 농어업 분야 근로 희망자 대상 한국어 및 기술 교육, 체류 상담 지원
- 안정적 지역 정착 및 농어촌 인력 부족 해소
- 농어업 분야 영주이민, 투자이민 연계

21

Q. 국내 계절근로 활용 가능 대상자는?

〈표1〉 등록외국인 자격별 체류 현황

(2022.08.31. 현재, 단위 : 명)

계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연경영 (D-9)	교 수 (E-1)
	46	117,481	51,591	1,376	1,020	6,507	2,083	2,044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1,124,632	13,827	3,847	206	216	3,316	22,820	4,137	222,866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영 주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9,010	95,233	43,755	22,962	173,698	134,607	107,793	74,211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8월호



자료: 구글 이미지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왔다.

-막스 프리쉬-



파독간호사의 한 쪽 소매가 잘린 간호복

“우리는 독일 병원이 간호사를 필요로 해서 이곳에 왔으며, 당신들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거래 상품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돌아갈 것이다.”

- 독일인에게 지지서명을 받는 등 추방 저지운동 전개
- 독일 내 외국인 간호 여성들의 집단해고와 강제귀환에 저항하는 의미로 간호복의 한 쪽 소매를 자르는 결의를 보여줌.
- 그 결과, 독일 근무 기간에 따라 무기한 허가, 영주권 획득, 시민권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외국인법 시행령 개정
- '손님 노동자'에서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
- 재독한인사회를 이끄는 중심축이 됨.

자료: 재외동포신문

독일은 노동력을 원했지만,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들이 왔다고 말한 어떤 독일소설가의 표현처럼 **외국인노동자들은 노동력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독일인들에게 호소하던 나는 이제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내가 어떤 한국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이주여성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독일사회의 가장 약자였던 내 자신의 옛 모습과 만난다.

이주여성들이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한국사회는 아직 요원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소망이다.

이주여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들이 당연한 인간으로 대접받도록 돕는 것이 내가 독일에서 이주여성노동자로 받았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료: 한국인 파독간호사가 말하는 이주노동자의 삶(KLSI)



파독 간호사와 정병동, 1960-70년대 2천여 명의 당기시험 합격 후 일본로 파견다.



자료:이주여성인권센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사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해외 사례

1. 캐나다
 - 농업분야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외에 연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로(Agricultural Stream)도 운영
 - 장기고용 형태: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 (Stream for Lower-skilled Occupations)
 - 농식품분야 영주이민 시범사업 (Agri-Food Immigration Pilot)
 - 일부 주에서는 농업분야 투자를 통해서 영주이민자를 받아 이기도 함
 - 농업분야에서 일해 온 외국인의 숙련도에 따른 장기취업 허가 새로운 정책과 대두될 수 있음

아주경제

인쇄하기 | 닫기

충남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역 사회 통합방안 논의

- '농가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 3차 회의... 관련부처 유기적 협업 강조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농어촌 다문화 이해 및 인권 교육 등 제안

(충남)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 입력 : 2022-12-21 12:41 | 수정 : 2022-12-21 12:41



농가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지난 20일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역 사회 통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기획경제위원회 김석근 의원(금산1·국민의힘), 충남도 및 논산시 관계부서 담당자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중인 논산시 농민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박미정 건양사이버대학교 다문화한국어학과 교수는 국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실태를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계절근로자 배치 전담기관 설립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 및 확대 ▲성실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및 농업숙련인력 자격 부여 ▲농어촌 상황을 고려한 업무계약 ▲농어촌지역 다문화감수성·인권 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 의원은 "연구모임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라오스 중앙정부와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수급과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충남)허희만 기자(hmher@ajunews.com)

Ⅲ. 연구모임 결과 및 제언

① 연구모임 결과

1.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농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는 인력 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농업 및 작물재배업의 계절적 특성과 고용인력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공급이 어려운 상황
-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 농업분야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문제와 연관돼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돼 식량안보와 농촌 사회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2. 해결방안 강구

- 농촌의 특성에 맞는 필요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
-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 인력중개업체의 임금·수수료 착취

② 연구모임 제언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 농업 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필요
- 계절근로자를 선정 배치할 수 있는 전담기관 필요
 - 신뢰할만한 외국인지자체 MOU체결 어려움
- 관련 부처 유기적 협업 필요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및 4대 보험 업무 등
 - 외국인 임시번호로 산재보험 등록 시 가입 어려움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 시스템 구축
 - 사용농가 현황 및 외국인 계절근로 입출국 4대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사전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체류 농어촌 환경, 문화, 종사 업종, 기초 한국어, 안전교육, 성실근로자 제도 등
- 계절근로자 고용 업체 방문 실태 점검 및 상담
 - 근무 환경 점검, 고용주-근로자 간 애로사항 상담 등